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구사(九四)는 운운, 흑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므로 허물이 없다.

구사는 사람의 윗자리 그리고 천의 바로 아랫자리에 있어서 뛰어 나가려는 상(象)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말, 즉 '흑'으로 칭하였다. '흑'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의심케 하여 감히 뛰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나 무리를 떠난다는 혐의가 없어 허물이 없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위에 강건하고 중정하며 성스러운 덕을 지닌 군주가 있음에도 구사(九四)가 혹 뛰어 나아간다면 흉함과 허물이 클 것이다.

곤(坤)

육이(六二) 곧고 반듯하고 크다(直方大).

[상전(象傳)] 육이의 움직임을 곧고 방정하다(六二之動, 直以方也).

땅의 도는 고요하고 음의 체(體)는 작은데도 곧 육이에서 '크다', '움직인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고요하고 작은 것은 체(體)의 상(常)이고 움직이고 큰 것은 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건도가 변하면 곤은 순종하고 이음으로써 만물을 낳는 작용을 완성한다. 그 때문에 곤의 움직임이 굳센 것은 천의 지극히 건강함에 응한 것이고, 그 작용이 큰 것은 건의 한계 없음에 부합하는 것이다. '상육(上六) 용이 들에서 싸운다(龍戰于野]

이는 음이 극한에 이르러 양과 다툼을 의미한다. 순수한 곤괘는 양이 없다는 의심을 받는다. 음이 이 전투를 주관하도록 하고 싶지 않으므로 '용'이라고 칭하였다. '들판에서'라고 한 것은 양이 밖에 있고 음이 안에 있으면서 포위를 당하였다는 뜻이니 음을 억제하는 것이다. 양이 전투를 주도하고 음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라고 칭하였다. 음이 강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무리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양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것이니 양을 치켜세우고 음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지극하다.

양은 군주가 되고 음은 신하가 된다. 왕에게는 정벌(征伐)은 있지만 전투는 없다. 전투라고 한 것은 음이 강성하여 양에 대적함을 보여준다. 피를 흘리며 음과 싸우다 보면 양이라도 상처가 없을 수 없으므로 '검고 누르다'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상육(上六)은 음이 이미 극에 이르러 다한 상태이고, 음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양이 생긴다. 처음에는 전투를 벌여 밖에서 상처를 입지만 끝내는 반드시 승리하여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므로 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상전(象傳)]에 "'용이 들에서 싸운다'고 한 것은 그 도가 다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음양이 싸우기는 하지만 음의 도가 이미 다하였으므로 양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이다. 처음에는 음이 위에서강성하지만 양이 밑에서 회복되는 상황이다.

준(屯)

육이(六二) 어려워하고 머뭇거리며 말을 탔다 내린다[屯如邅如, 乘馬班如].

오징은 "'승마'는 네 마리 말이다. 네 개의 음이 네 마리 말의 상(象)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상전'에 육이의 어려움'은 강(剛)을 탔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분명히 양을 탔다고 설명하고 있다. 육삼(六三)의 '사슴을 쫓는데[即鹿]'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오징은 우번(虞翻)과 왕숙(王肅)을 따라 '산기슭[麓]'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전'에서는 '사슴을 쫓는것'을 '사냥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공자의 글을 버리고 다른 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몽(蒙)

구이(九二) '상전(象傳)' '자식이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강(剛)과 유(柔)가 만난다는 것이다[子克家, 剛柔接也].

내가 생각건대, 구이는 양으로서 내괘의 아랫자리에 있으니 자식의 상이 또 감(坎)은 둘째 아들이다. 육오는 유(柔)로 윗자리에 있으면서 중(中)주관하므로 어머니의 상이다. 강과 유가 접하여 그 일을 맡으니 어머니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상이다. 정자는 오(五)를 아버지로 보고, 오징은 오(五)를 며느리로 보는데 모두 타당치 않은 듯하다.

수(需)

육사(六四) '상전(象傳), '피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순종적으로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需子血', 順以聽也].

육(大)이 감(坎)의 체(體)에 자리하니 이미 험난한 지경에 빠져 상처를 입었다. 군자가 환난에 처해서는 오직 이치에 따라 하늘의 명령만을 듣고 죽음과 삶, 재앙과 복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아첨이나 간사한 일을 통해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두려움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을 잃어서도 안된다. 이미 이치에 따르고 있다면 감의 첫 자리에 거하여 험난함이 그다지 깊지 않으므로 빠져 나와 흉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52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4〉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황포동학록(黃埔同學錄)』의 4기생 신상기록에 의하면, 재학 당시 권장군의 "소속은 보병 7련(蓮)이었고, 별명은 무산(武山), 나이는 27세, 국적은 한국, 통신처는 강소성(江蘇省) 금산수경서시(金山陳涇西市) 508호 팽(彭)씨댁"이었다.

1926년 10월 광동성 광주의 황포군관학교 4기생으로 졸업한 권장군은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장교로 임관되어, 북벌(北伐) 전투에 참전한 다음,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武漢分校;중국 호북성 무한시 소재)의 교관으로 배속되었다. 이후 권장군은 중국군 장교의 신분으로, 한국 인독립운동의 주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북벌전이 진행 중이던 1927년 2월 개교한 무한분교의 설립 목표는 북벌 전에 투입할 국민혁명군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황포군관학교의 5기생 중에서 포병, 공병, 정치과 입교생 일부를 이동시키고, 추가로 1,100여 명의 남녀 학생을 모집하였다.

당시 무한분교 입교생 모집위원회는 중국전역의 요충지에 '입교생 모집 특파원'을 파견하였고, 중국 국민당의 지부조직을 이용하여 입교생을 모집하였는데, "한국청년회에 입교생 모집을 위탁하여 이들이 모집한 한인청년을 입교시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청년회'는 유악한국혁명청년회(留鄂韓國革命青年會, 이하 '유악청년회'; 악鄂은 호북성湖北省의 약자이다. 성의 수도는 무한)를 가리킨다.

유악청년회는 국공합작이 파국을 맞이하는 1927년 초 무한에서 결성되었다. 의열단 무한지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조직구성상 겹치는 부분도 많았다. "한국혁명의 이론 및 방략을 연구하고, 정치·군사상 일체의 혁명훈련에 노력하며" "일체의 개인중심적인 사상 및 지방감정적인 결합을 박멸함으로써, 혁명전선의 숙청 및 통일을 완성하는"것을 목표를 하였다.('의열단 창립선언문'은 곧 단재 신채호 선생이 기초한「조선혁명선언문」이다)

아울러 '한국 민족혁명 및 사회혁명' '세계 혁명군중과의 연합을 통한 세계 혁명의 완성'을 표방한 이 단체는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의 협동전선 완성' '민족유일당 조직 시 즉각적인 가입' '국내외 각지 한국혁명단체와의 연락' '중국정부와의 연합을 통한 국제자본제국주의 타도' '혁명이론의 연구와 정치·군사상 단체 혁명훈련의 노력' '개인적 사당(私黨) 및 지방적·감정적 결합의 배격' '세계피압박민족 및 피압박계급 해방전선에의 참가' 등을 결의함으로써, 1920년대 후반기 한인 독립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써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접목을 통한 협동전선운동을 제시하였다.

유악청년회에는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에 근무, 재학 중인 한인들과,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 복무 중인 한국인이 참여하였다. 황포군관학교 4기 졸업생으로서 중국군에 복무 중인 권준·오세진·노세방, 무한분교 입교생인 진공목(陳公木)·진갑수(陳甲秀)·안동민(安東民)·안자산(安自山)·사검인(史劍仁)·왕거(汪炬)·관추·조국동(趙國棟)·안동만(安東晩)·송욱동(宋旭東)·김준(金俊)·유광세(劉光世)·김치정(金致廷)·이종(李鍾)·유원도(柳源道)·박태섭(朴泰燮)·진용학(陳龍鶴)·백규(白珪)·이건(李建)·최승연(崔承淵)·김희철(金熙喆)·박우균(朴禹均)·이춘식(李春植)·이벽파(李碧波) 등이 회원이었다.

이들 외에도 유자명(柳子明)·김원봉 등 당시 무한에 머물고 있었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도 적극 가담하였다. 유악청년회는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 하에 중국 호북성 지역의 한국인관련 사무 일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유악청년회의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 '비서(秘書)' 직의 권준 장군이었다. 또 그는 5인 상무집행위원(권준, 안동민, 홍의표, 진갑수, 진공목)의 한 사람으로서, 서무부를 관장하였다. 당시 권장군은 국민혁명군 제6군 포병영 부영장으로 재직 중이며, 무한분교 훈련부 교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군의 부영장과 훈련교관 직을 수행하였던 사실과, 유악청년회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유악청년회가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시와 지원을 받고 있었던 사실과 연관 지워 접근해 보면, 당시 권장군의 위상과 역량의 중책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의열단과 무한지역 중국국민당 및 중국군 측의 관계가 원활하였고, 권장군이 양자 간의 소통을 담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권장군은 1927년 상반기 무한의 양쯔강 대안의 도시 한커우(漢口)에서 개최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반제국·민족해방'을 표방하며, 제국주의세력의 식민지배에 신음하고 있던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국제적 연대를 지향하였다.

유자명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무한에 있었던 동지들로는 약산 김원봉, 리검운, 권준, 안동만, 최원, 최승년, 양검 등이었다. 리검운(李劍雲)은 제6군 포병영 영장이었고, 권장군은 부영장이었으며, 안동만은 영부(營附)의 부관이었다." "북벌전쟁이 승리적으로 진행될 때, 무한에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가 성립되어, 당시 중국·인도·조선(한국)의 대표가 이 연합회에 참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4)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5편 공야장(公冶長)

제4장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옹[雍]은 인자하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다."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말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말로 따져서 웅대할 경우가 많으면 자주 남의 미움을 사게 되는 법이니 그 사람이 인자함지는 알 수 없거니와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원문]

或曰 雍也는 仁而不佞이로다 子曰 焉用佞이리오 御人以口給하면 屢憎於人하나니 不知其仁이러니와 焉用佞이리오.

[혹왈 옹야는 인이불녕이로다 자왈 언녕이리오 어인이구급하면 누중어인하나니 불지기인이러니와 언용녕이리오.]

[이해]

옹[雍]은 이름 성은 염[冉] 자[字]는 중궁[仲弓]이며 공자의제자로 공자 보다 스물아홉 살이 연소하였다. 염옹이 어질기는 해도 구변이 모자란다는 비평이 군자의 근본에 있어 말재주 같은 것은 원래 따질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식견이 얕음을 되짚어 나무라는 것이다.

제5장

공자[孔子]가 칠조 개[漆雕開]에게 벼슬을 하라고 시키자 칠조 개 대답 하였다. "저는 오직벼슬살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이말을 들은 공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원문]

子使漆雕開로 仕하시되 對曰 吾斯之未能信이라하니 子說하시다.

[자사칠조개로 사하시되 대왈 오사지미능신이라하니 자설하시다.]

[이해]

칠조[漆彫]는 복성[複姓]을 이름이 계[啓].자[字]가 자개[字開]이다. 노나라 사람이며 공자보다 열한 살이 연소하였다.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자질을 구비하였음에도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칠조 개의 겸허한 자세를 공자가 기특히 여긴 것이다.

제6장

공자가 말하였다. "도가 행하여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게 되면 나를 따를 사람은 유뿐일 게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유가 용맹을 좋아하는 것은 나보다 낫지만 사리분별을 잘하지 못한다."

[원문]

子曰 道不行이라 乘桴浮於海하거니 從我者는 其由與인저 子路聞之하고 喜하되 子曰 由也는 好勇은 過我하나 無所取材러니라.

[자왈 도불행이라 승부부어해하거니 종아자는 기유여인저 자로문지하고 희하되 자왈 유야는 호영은 과아하나 무소취재러니라.]

[이해]

공자[孔子]가 맹무백[孟武伯]의 질문에 제자들의 개성과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매번 그 들이 완성된 인품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여기서의 부[賦]는 옛날의 군병[軍兵]의 뜻이다. 세 번째의 적[赤]은 성[姓]이 공서[公西]자[字]는 자화[子華]로 적[赤]은 그의 이름인데 공자의 제자이며 노나라 사람이고 공자보다 마흔두 살이 연소하였다.

제7장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인자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또 물으니 공자가 말하였다. "유는 천승을 거느리는 나라의 군무를 다스리는 일을 능히 시킬만하거니와 그가 인자한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구는 어떠합니까?"공자가 말하였다. "구는 천호쯤 되는 고을과 백승을 거느리는 경대부집의 집사정이나 가신 노릇은 능히 시킬만하거니와 그가 인자한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겠다."적은 어떠합니까?"공자가 말하였다. "적은 관대를 낮추고 조정에 들어가서 빈객과 더불어 대담을 나누게 능히 시킬만하거니와 그가 인자한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원문]

孟武伯이 問하되 子路는 仁乎니까 子曰 不知也러라 又問하되 子曰 由也는 千乘之國에 可使治其賦也러니와 不知其仁也라 求也는 何如니이까 子曰 求也는 千室之邑과 百乘之家에 可使爲之宰也러니와 不知其仁也라 赤也는 何如니이까 子曰 赤也는 束帶立於朝하여 可使與賓客言也러니와 不知其仁也라.

[맹무백이 문하되 자로는 인호니까 자왈 불지야러라 우문하되 자왈 유야는 천승지국에 가사치기부야러니와 불지기인야라 구야는 하여니이까 자왈 구야는 천실지읍과 백승지가에 가사위지재야러니와불지기인야라 적야는 하여니이까 자왈 적야는 속대입어조하여 가사여빈객언야러니와 불지기인야라.]

[이해]

공자[孔子]가 맹무백[孟武伯]의 질문에 제자들의 개성과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매번 그 들이 완성된 인품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여기서의 부[賦]는 옛날의 군병[軍兵]의 뜻이다. 세 번째의 적[赤]은 성[姓]이 공서[公西]자[字]는 자화[子華]로 적[赤]은 그의 이름인데 공자의 제자이며 노나라 사람이고 공자보다 마흔두 살이 연소하였다.

제8장

공자가 자공에게 말하였다. "너와 회를 비교하면 누가 더 우수하겠느냐?" 자공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찌 감히 회를 바라 볼 수 있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데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압니다."공자가 말하였다. "그만 못하다. 나도 너도 그만 못하다."

[원문]

子謂子貢曰 女與回也로 孰愈오 大曰 賜也가 何敢望回리이까 回也는 聞一以知十하고 賜也는 聞一以知二나이다 子曰 不如也니라.吾與女가 不如也노라.

[자우자공왈 여여회야로 숙유오대왈 사야가 하감망회리이까 회야는 문일이지십하고 사야는 문일이지이나이다 자왈 불여야니라.오여여가 불여야노라.]

[이해]

공자가 안회의 훌륭한 인격이 자공이나 자기보다도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X. 訓子篇(훈자편)

*이 훈자편 은 자식을 가르치는 글이다. 즉 자식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며,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마땅히 그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뜬 구름과 같아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다. 가르치는 것만이 자식의 앞날을 위한 가장 빛나는 유산이다.

●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 賓客不來門戶俗(빈객불래문호속)하고 詩書無教子孫愚(시서무교자손우)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저속(低俗) 해지고 시서(詩經과 書經)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지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賓..손 빈, 客..손객, 빈객(賓客)=손님, 문호(門戶)=집안, 俗=풍속 속, 속됨-천박 하다는 뜻, 詩..시 시, 書..글 서..긴 문장을 말함. 愚..어리석을 우.

● 莊子 曰(장자 왈) 事雖小(사수소)나 不作(부작)이면 不成(불성)이오 子雖賢(자수현)이나 不教(불교)면 不明(불명).이니라..

해설: 장자가 말하기를, "일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자식이 비록 어질지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作..지를 작, 成..이룰 성, 雖..비록 수, 賢..어질 현, 賢人..聖人(성인)에 버금갈만한 才德이 있는 사람, 教..가르칠 교.

● 漢書에 云(한서에 운) 黃金滿籯(황금만영)이 不如教子一經(불여교자일경)이요 賜子千金(사자천금)이 不如教者一藝(불여교자일예)니라.

해설: 한서에 이르기를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千金)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한서(漢書)는 전한(前漢)의 고조(高祖)에서 왕망(王莽)까지 229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반표(班彪)가 시작한 것을 반고(班固)가 이루었으며 그의 누이 반소(班昭)가 고쳐 완성 했다. 모두 120권으로 되어 있다.

黃..누르 황, 滿..가득할 만, 찰 만, 籯..상자 영, 바구니 영, 賜..줄 사,

● 至樂(지락)은 莫如讀書(막여독서)요 至要(지요)는 莫如教子(막여교자)니라.

해설: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같음이 없고 지극히 필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 만 같음이 없느니라."

참고: 至..지극할 지,이를 지, 要..중요로울 요,구할 요, 莫..없을 막

● 呂榮公이 曰(여영공이 왈) 內無賢父兄(내무현부형)하고 外無嚴師友而能有成者(외무엄사우이능유성자)가 鮮矣(선의)니라.

해설: 여영공이 말하기를, "집안에 지혜로운 어버이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 능히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드므니라."고 하셨다.

참고: 여영공(呂榮公)은 북송(北宋)때의 사람으로 이름은 희철(希哲), 자는 원면(原明)이며 영(榮)은 시호이다. 榮..영화 영, 嚴..엄할 엄, 師..스승 사, 友..벗 우, 鮮..드물 선, 산뜻할 선, 成..이룰 성.

● 太公이 曰(태공이 왈) 男子失教(남자실교)면 長必頑愚(장필완우)하고 女子失教(여자실교)면 長必麤疎(장필추소)니라.

해설: 태공이 말하기를 "남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며, 여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거칠고 솜씨가 없는 이가 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失教(실교)=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잃는다는 뜻, 失..잃을 실, 教..가르칠 교, 頑愚(완우)=미련하고 어리석어진다는 뜻, 頑..완만할 완, 愚..어리석을 우, 麤疎(추소)=거칠고 세심하지 못하다는 뜻, 麤..거칠 추, 疎..세심하지 못할 소, 거칠 소, 麤자는 麤자의 속자이다.

● 男年長大(남년장대)어든 莫習樂酒(막습악주)하고 女年長大(여년장대)어든 莫令遊走(말녕유주)니라.

해설: "남자가 자라나거든 풍류나 술을 익히지 못하도록 하고, 여자가 자라나거든 아무데나 놀러 다니지 못하도록 할지니라."

참고: 男..사내 남, 習..익힐 습, 樂=풍류 악, 즉 음악, 풍악, 악극 등을 읽을 때는 "악"으로 발음하고, 오락, 낙천 등 즐길 때는 "락=낙"으로 발음하며, 좋아한다 할 때는 "요"로 발음한다, 遊..놀 유, 走..달릴 주, 酒..술 주.

● 嚴父(엄부)는 出孝子(출효자)하고 嚴母(엄모)는 出孝女(출효녀)니라.

해설: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내느니라.

● 憐兒(연아)어든 多與棒(다여봉)하고 憎兒(증아)어든 多與食(다여식)하라.

해설: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때리고 자식을 미워하거든 밥을 많이 주어라.

● 人皆愛珠玉(인개애주옥)이나 我愛子孫賢(아애자손현)이니라.

해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귀중한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이 어진 것을 사랑하노라.

참고: 憐..사랑할 연, 불쌍히 여길 련, 憎..미워할 증, 與..줄 여, 棒..몽둥이 봉, 珠..구슬 주, 皆..다 개, 賢..어질 현.